

고전 시가 (강세진 교수)

2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보게 이웃들아, 산수(山水) 구경 가자꾸나. 산책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 아침에는 나물 캐고, 저녁에는 고기 낚세. 이제 막 익은 술을 두건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數) 세며 마시리라. 봄바람 문득 불어 푸른 들 건너오니, 맑은 향기 술잔에 가득, 붉은 꽃잎 옷에 진다. 술독이 비었으면 나에게 말하여라. 소동(小童) 아이에게 술집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등이 메고, 나직이 흥얼대며 시냇가에 혼자 앉아, 고운 모래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맑은 시내 굽어보니, 떠오르는 건 도화로세. 무릉이 가깝구나 저 들이 무릉인가. 솔숲 사이 좁은 길에, 진달래꽃 부여잡고, 봉우리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수많은 마을들 여기저기 벌여 있네. ㉠안개 늘 햇빛은 비단을 펼쳐 눈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이 완연하네. 부귀(富貴)도 날 꺼리고 공명(功名)도 날 꺼리니, 아름다운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오. 누추한 곳 가 난한 삶 헛된 생각 아니하네. 아무튼 평생 즐겁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 정극인, <상춘곡>

(나)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山脈)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 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 이육사, <광야>

(다)

내게 행복이 온다면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내게 불행이 와도
나는 또 그에게 감사한다.

㉣한 번은 밖에서 오고
한 번은 안에서 오는 행복이다.

우리의 행복의 문은

㉤밖에서도 열리지만

안에서도 열리게 되어 있다.

내가 행복할 때

나는 오늘의 햇빛을 따스히 사랑하고

내가 불행할 때

나는 내일의 뱀들을 사랑한다.

이와 같이 내 생명의 숨결은

밖에서도 들여쉬고

안에서도 내어쉬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내 생명의 바다는

밀물이 되기도 하고

썰물이 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출렁거린다.

- 김현승, <지각(知覺)>

(라)

활짝 갠 날씨에 물색이 산뜻한데
즐거운 놀이에 온갖 회포와 시름 다 잊는다.

지는 해를 머금은 강물은 황금 빛이요
바람결에 흩날리는 버들솜은 흰 눈이어라.

㉥고향 강산은 천 리 밖에 먼데
한 두루미 술로 담소를 나누니 만 가지 인연도 부질없네.
감흥이 일어 새로운 시 한 수 쓰려 하나
붓 들어 적으려 하니 호기(豪氣) 모자라 부끄러우이.

- 정지상, <춘일(春日)>

1.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에는 청자가 드러나 있다.
- ② (나), (다)에는 이미지의 대조가 드러나 있다.
- ③ (나), (라)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 ④ (가), (다)에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가 드러나 있다.
- ⑤ (다), (라)에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2. (가)의 시적 화자 '갑'과 (라)의 시적 화자 '을'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갑 : 이렇듯 아름다운 봄날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네요.
- ② 을 : 저도 화창한 날씨를 즐기며 시름을 잊을 수 있으니 기분이 좋군요.
- ③ 갑 : 경치를 즐길 때면 가끔은 내가 무릉도원에 온 듯한 착각이 들 때도 있어요.
- ④ 을 : 제가 체득한 호연지기를 시(詩) 속에 표현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군요.
- ⑤ 갑 : 저도 자연을 벗하는 삶이 좋아요. 부귀공명에는 별 뜻이 없습니다.

3. (나)의 ㉠와 <보기>의 표현상 공통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 보 기 > —

冬至(동지)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春風(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털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랴.

- 황진이

- ①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②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의탁하여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이미지로 변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⑤ 대비적 소재를 활용하여 자신의 심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4. <보기>의 다음 시어들 중 (다)의 '내일의 별'과 그 이미지가 상응하는 것은?

— < 보 기 > —

태양(太陽)을 의논(議論)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城)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 신석정, <꽃땀>

- ① 달빛
- ② 밤
- ③ 성(城)터
- ④ 하늘
- ⑤ 태양

5. 다음은 (나)에 대한 감상이다. 내재적 의미에 주목한 것은?

- ① 보람 : '-라'라는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 ② 유림 : 이 시를 읽고 나서 나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 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
- ③ 회정 : 독립운동가였던 시인의 행적을 고려해보면 '매화 향기'는 고매(高邁)한 정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 ④ 경야 : 시인의 역사의식을 감안하면 '광야'라는 말은 단지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으로 이해할 수 있어.
- ⑤ 자연 :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창작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후손일 거야.

6. (다)의 화자가 성적이 떨어져 실의에 빠진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괜찮아, 성적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 뭐 그렇게 괴로워하니.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 ② 다 털어 버리고 바람 쐬러 놀이 공원에 가자. 놀다보면 성적 떨어진 일은 잊을 수 있을 거야.
- ③ 그렇게 괴로워한다고 해서 떨어진 성적이 다시 오르지 않아. 일단 모든 일을 잊고 집에 가서 쉬도록 해라.
- ④ 이번 실패를 거울삼아 열심히 공부한다면 다음에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야.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 ⑤ 집에 가서 성적이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분석해 보도록 해라. 그래야 다음에 성적이 떨어지지 않지.

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② ㉡ : 대상의 역동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 ③ ㉢ : 대구·반복의 기법이 드러난다.
- ④ ㉣ : 반어적 표현에 따른 형상화 기법이 드러난다.
- ⑤ ㉣ : 심리적 거리감을 수량화한 표현이 드러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黃雀何方來去飛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一年農事不曾知 일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鰥翁獨自耕耘了 늙은 홀아비 홀로 갈고 댔는데
 耗盡田中禾黍爲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 이제현, <사리화(沙里花)>

(나)

도롱이에 호미 걸고 뽕이 굵은 검은 소 물고
 고동풀을 뜯어 먹이며 개울가로 내려갈 때
 어디서 일하던 벼님이 나와 함께 가자 하시고. <2장>

⑥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벼는 피는 모가 곱구나.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구나.
 아마도 하느님 너희 만들 때에 나를 위해 만드셨네. <7장>
 - 위백규, <농가(農歌)>

(다)

팔월이라 중추되니 백로추분 절기로다.
 북두칠성의 자루가 돌아 서쪽 하늘을 가리키니
 아침 저녁이 선선하여 가을 기운이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 소리가 벽 사이에서 들리는구나.
 아침에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 내려
 온갖 곡식을 여물게 하고 만물이 익기를 재촉하니
 들 구경 돌아보니 **힙들인 꿩**이 나타나는구나.
 백곡에 이삭 패고 곡식알이 들어 고개 숙여
 서풍에 익는 빛은 @노련 구름이 이는 듯하다.
 백설 같은 면화송이 산호같은 고추 열매
 처마에 널었으니 가을별이 명랑하다.
 안팎 마당 닭아 놓고 밭채 망구 장만하소.
 면화 따는 바구니에 @수수이삭 콩 가지요.
 나무꾼 돌아올 때 @머루다래 산열매라.
 뒷동산 밤 대추는 아이들 세상이라.
 알밤은 모아 말려서 필요한 때 쓰게 하소.
 명주를 끓여 내어 가을별에 표백하고
 남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이니 청홍이 색색이로구나.
 부모님 연세가 많으니 수의를 미리 준비하고
 그 나머지는 마르고 채어서 자녀의 혼수하세.
 (하략)
 - 정학유,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나)는 풍경 묘사에 이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 (다)에는 검소한 삶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 ③ (나), (다)는 사계절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 ④ (가), (나)에 비해 (다)는 권유하는 어투로 교훈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모두 전원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표현되어 있다.

9. a~e 중, **힙들인 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0. (가)와 <보기>의 시가 창작 동기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때, 두 작자가 공통적으로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느릅나무 해나무 목어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 곳에 깃들지 않니?”
 제비 다시 지지귀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해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 정약용, <고시8>

- ① 자연물을 적절히 활용해야겠어.
- ② 부정적 현실을 풍자적으로 표현해야지.
- ③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이끌어 가야지.
- ④ 직설적 방법보다는 우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지.
- ⑤ 의미상 대립되는 소재로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게 좋겠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매화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구요?

세인(世人)은 매화는 늙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늙은 등걸이 ㉠용의 뿔뿔어리처럼 뒤틀러 올라간 곳에 성긴 가지가 군데군데 뻗고 그 위에 띄엄띄엄 몇 개씩 꽃이 피는 데 품위가 있다고 합니다.

(중략)

나는 구름같이 핀 매화 앞에 단정히 앉아 행여나 풍겨오는 ㉡압향(暗香)이 다칠세라 호흡도 가다듬어 쉬면서 격동하는 심장을 가라앉히기에 힘을 씁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나에게 곧 무슨 이야기인지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매화를 대할 때의 이 경건해지는 마음이 위대한 예술을 감상할 때의 심경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 눈앞에 한 개의 대리석상이 떠오릅니다. 희랍에서도 유명한 피디어스의 작품인가 봅니다.

운강(雲岡)과 용문(龍門)의 거대한 석불들이 아름다운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서 내 눈앞에 황홀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잠시 후 여러 환영들은 사라지고 신라의 석불이 그 부드러운 곡선을 공중에 그리며 아무런 조건도 없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자세로 내 눈을 어지럽고 황홀하게 합니다.

그러다 나는 다시 희멸진 조선조의 백사기(白砂器)를 봅니다. 희미한 ㉢보름달처럼 아름답게 조금도 그의 존재를 자랑함이 없이 의젓이 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수줍어하는 품이 소리쳐 불러도 대답할 줄 모를 것 같구려. 고동(古銅)의 빛이 제아무리 곱다한들 용천요(龍泉窯)*의 품이 제 아무리 높다한들 이렇게도 적당한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택에 매화가 ㉣구름같이 핀 그 앞에서 나의 환상은 한없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매화와 석불과 백사기의 존재를 모조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결처럼 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있는 듯 만 듯한 ㉤향기가 내 코를 스치는구려. 내 옆에 선생이 막 책장을 넘기시는 줄 어찌 알았으리요.

요즈음은 턱없이 분주한 세상이올시다. 나 남 할 것 없이 몸보다는 마음이 분주한 세상이올시다.

바로 며칠 전이었던가요. 어느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선생 택에 매화가 피었다니 구경이나 갈까?” 하였더니 내 말이 맺기도 전에 그는 “자네도 꽤 한가로운 사람일세.”하고 조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이다지도 바빠졌는가. 물에 빠져 금시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 친구 인사라도 한 자였다면 건져 주었을 걸’하는 영국풍의 짐작성은 못 가졌다 치더라도, 이 커피는 맛이 좋으니 언짢으니 이 그림은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하는 터에 빙설을 견뎌내고 피어난 애련한 매화를 완상(玩賞)*할 여유조차 없는 이다지도 냉회(冷灰)*같이 식어 버린 우리네 마음이리까?

- 김용준, <매화>

* 용천요 : 중국의 용천 가마에서 구운 도자기

* 완상 : 즐겨 구경함

* 냉회 : 불이 꺼져서 싸늘하게 식은 재

(나)

압개예* 안개 젓고 된피희 희 비친다
 빅 떠라 빅 떠라

㉠ 밤물은 거의 디고 날들이 미러온다.
 至지菊국總총 至지菊국總총 於어思사畵와
 江강村촌 온간 고지 먼 비치 더욱 도타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숨가
 이어라 이어라

㉡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至지菊국總총 至지菊국總총 於어思사畵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간 고기 뉘노느타

년넝희 밥 싸두고 반찬오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 靑靑蕪약笠笠은 씨 잇노라, 綠綠糞사衣의 가져오나
 至지菊국總총 至지菊국總총 於어思사畵와
 無무心심흔 白백鷗구는 내 좃느가 제 좃느가

物물外외에 조흔 일이 漁어父부生생涯에 아니러나
 빅 떠라 빅 떠라

㉣ 漁어翁翁을 운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至지菊국總총 至지菊국總총 於어思사畵와
 四四時時興흥이 흥가지나 秋秋江강이 은듬이라

구름 거든 후의 흰빈치 두뎃거다
 빅 떠라 빅 떠라

㉤ 天천地地閉폐塞塞호디 바다흔 依의舊구호다
 至지菊국總총 至지菊국總총 於어思사畵와
 ㄱ업슨 물결이 김편 듯 흥여 있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

* 압개예 : 앞 갯벌에

11. (가), (나)의 공통적인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삶을 반성적으로 보고 있다.
- ②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③ 현실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 ④ 자연과 더불어 풍류와 멋을 즐기고자 한다.
- ⑤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며 이를 개혁하고자 한다.

12. ㉠~㉤ 중, '매화'와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윤선도의 문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어부사시사>를 소개하는 안내 책자를 만들려고 한다. 책자에 수록될 ㉠~㉣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의성어를 통해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청각과 시각적 심상의 조화가 잘 나타나 있다.
- ③ ㉢ : 소박한 삶의 모습과 물아일체의 경지가 나타나 있다.
- ④ ㉣ : 자연 속에 묻혀 있지만 속세를 걱정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⑤ ㉣ : 얼어붙은 겨울이지만, 비단을 펼친 듯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14. (가)의 ㉠과 (나)의 시적 화자가 <보기>의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시간 단축이 바로 생산성 향상이다.
- 빠른 서비스가 고객을 만족시킨다.
- 경쟁자보다 빨라야 선점 효과가 있다.

- ① 친구 :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생활 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② 시적 화자 : 하지만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닐세. 삶에도 여유가 필요하대네.
- ③ 친구 : 그러나 한가롭게 여유를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선 행동이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 ④ 시적 화자 : 그런 조급증이 사회를 각박하게 한다네. 자연 속에 묻혀 속세를 잊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네.
- ⑤ 친구 : 사실 저도 가끔 차를 마시고 그림을 보며 여유를 가져 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느긋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달콤한 사랑을 먹던 입으로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심심하고 밍밍한 것이 영 맛이 없다. 강하게 단맛을 들여 놓은 입에 사과가 제 맛이 날 리가 없다. 사람의 미각은 달거나 맵고 짠 양념이 너무 강하면 음식의 제 맛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향신료의 강한 맛이 우리의 혀를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진한 양념으로 둔갑해진 입맛으로는 음식의 감칠맛을 느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인생의 맛도 행복감(幸福感)도 이와 같다.

오늘날의 야단스러운 산업 문명 속에서 살다보면 눈에 보이는 색깔들은 너무 강렬하고 현란스럽고, 귀에 들리는 음향도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음이라서, 그 속에서 농도 짙은 쾌감만 좇다 보면 섬세한 감각은 모두 잃고 만다. ㉠항생제도 그 단위가 높고 강력한 것을 쓰다보면 그보다 낮은 것은 전혀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점점 더 단위를 높여가지 않으면 효력을 볼 수 없게 되어 버린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강력한 쾌락에 탐닉하게 된 현대인들은 즐거움도 행복도 좀처럼 느낄 수 없는 돌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옛 시인들은 매일같이 뜨고 지는 달을 바라보고도 그 술한 시상(詩想)을 얻을 수 있었고, 예사로이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서 대자연의 리듬을 간취(看取)하였으며, 어디서나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베토벤의 교향곡보다 더 위대한 자연의 음악으로 감상할 수 있는 섬세한 귀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의 우리들은 그래서 옛 사람보다 불행하다.

알베르 카뮈는 '인생은 부조리(不條理)'라고 전제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러나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없다. 살면서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부조리가 인생을 지루하고 따분한 권태의 연속으로 만드는 것이다. 산다는 것이 그저 시시하고 따분할 때가 정말로 많다. 월요일이 지나면 화요일, 그리고 수·목·금·토·일요일이 오고 다음에 또다시 월요일이 온다. 인생의 부조리에 대해서 카뮈는 '인생은 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표현했다. 무의미한 요일의 명칭들이 돌고 도는 것과 같이 이처럼 의미 없는 지루한 삶의 쳄바퀴가 돌고 돈다. 무언가 신나는 일이 없을까, 화끈하게 재미가 쏠아지는 일이 없을까. 의미 있는 삶을 잃은 현대인들은 이 끈끈한 권태감을 잊게 해 줄 자극적인 흥분을 찾게 된다.

이렇게 해서 보다 강력하고 짜릿한 욕구에 목마른 자기와 진정한 자기와의 격차가 커진다. 그 격차가 더욱 심해지면 진정한 자기는 따분하고 너절한 것 같고 차라리 버리고 싶은 귀찮은 존재가 된다. 신기루 같이 자기를 기만해서 만든 과대 망상의 산물이나 자신 속에서 진정한 나를 억압하고 나 자신을 잃은 상태에까지 몰아넣는다. 사이버 신(神)을 모시다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광적인 유사 종교의 맹신자처럼 ㉢현대인은 거짓 욕구의 과잉 개발에 시달리며 거짓된 자기를 좇다가 진정한 자기를 살지 못하는 비극의 굴레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기를 찾아 헤매는 더욱 벅찬 인생 수양이 현대인에게는 더욱 절실해진다.

나는 그림은 잘 모른다. 산수화나 수목화 같은 동양화의 감식안을 갖추지 못한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처지다. 그러나 어느 전시회에서 검은 색 하나만을 써서 그린 ㉣수목화 앞에 섰을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현란한 컬러텔레비전으로 오염된 나의 시각에 아직 마비되지 않은 신경 오라기가 몇 줄 남아 있었을까. 검정색 하나의 그 그림에는 기운이 넘치고 5색 7색의 현란한 채색화를 능가하는 그 무엇이 있음을 발견했다. 매화도 먹으로 그리고, 일필휘지로 힘차게 뺀 난초 잎도 모두 검은색으로 써 그 농담(濃淡)의 기미와 상징 기호 같은 준법(皴法)*으로 유감 없이 그려내고 있었다. 밖으로 나대는 외화(外華)에 인색해서인지, 그런 이의 가슴속 깊은 곳의 여운이 은근하게 울아온다. 자극성 있는 흥분 같은 야

비한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법열(法悅)*을 일으키는 귀한 감동이 있다.

오래 잊었던 잔잔한 호수의 거울같이 평정(平靜)한 행복감이 수목화에 서 나에게 다가온다. 병든 현대인에게는 고요한 마음으로 참다운 자기를 되찾게 해 주는 수목화의 행복론이 인생의 내면을 살찌게 해 주는 보약이 되지 않을까.

- 신일철, <수목화의 행복론>

* 준법(皴法) : 동양화에서, 산악·암석 따위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쓰는 기법.

* 법열(法悅) : 참된 이치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황홀한 기쁨.

(나)

㉠보리밥 풋나물을 알마초 머근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꺾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러워할 줄 있으랴

┌ 잔 들고 혼자 안자 ㉡면 뉘를 바라보니
[A] 그리던 남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하노라

내 성(性)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오시어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들 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 윤선도, <만흥(漫興)>

15. (가)와 (나)의 글쓴이에게서 공통적으로 엿볼 수 있는 생각은?

- ① 쾌락을 좇으면 좇을수록 행복해지기 어렵다.
- ②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 ③ 화려하지 않게 살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 ④ 삶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속세를 떠나야 한다.
- ⑤ 자신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성찰하는 일은 중요하다.

16. (가)를 읽고 글쓴이가 글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의도한 바를 <보기>와 같이 추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 보 기 >

개인적인 경험을 활용하여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룬 수필 쓰기	
↓	
어떻게 전개할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 사탕을 먹다가 사과를 먹었던 경험을 소개하며 앞으로 다룰 화제를 제시하자.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거야.
㉡ 현대인들과 옛 사람들의 생활 양상을 제시하며 문제 상황을 부각하자.	현대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거야.
㉢ 소설가 카뮈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 상황의 원인을 진단하자.	독자들의 신뢰감을 강화할 수 있을 거야.
㉣ 상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설명하여 문제 상황을 심화하자.	글이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거야.
㉤ 실제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여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찾자.	독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의 구체적 사례로 적절한 내용은?

- ① 명진이는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밤을 새워 가며 공부한 결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여 성취감을 느꼈다.
- ② 여진이는 큰 포부를 가지라는 국어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세계를 품을 꿈을 갖게 되었다.
- ③ 성은이는 음악을 즐기려고 오디오 기기를 구입하였지만 다른기기가 새로 나오면 그것으로 바꾸지 못해 안달했다.
- ④ 병철이는 평범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복권에 집착했으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는 못했다.
- ⑤ 철수는 건강하고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 헬스클럽에 다녔지만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18. [A]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나에게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여 의(義) 아니면 좇지 말라
우리는 천성(天性)을 지키어 삼긴 대로 하리라 - 변계량
- ②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거든 옛 물이 있을소나
인걸(人傑)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 오노매라 - 황진이
- ③ 말 없는 청산(靑山)이요 태(態) 없는 유수(流水)로다
값없는 청풍(淸風)이요 입자 없는 명월(明月)이로다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分別) 없이 늙으리라 - 성혼
- ④ 삼동(三冬)에 배운 입고 암혈(巖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햇별도 썬 적이 없건마는
서산(西山)에 해 지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 조식
- ⑤ 비 오는데 들에 가라 사립 단고 소 먹여라
장마가 매양이라 쟁기 연장 다스려라
쉬다가 개는 날 보아 사래 긴 발 갈아라 - 윤선도

19.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의인화하였다.
- ②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였다.
- ③ 권유하는 말투를 구사하였다.
- ④ 대조적인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 ⑤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표현하였다.

20.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공자는 제자인 안회가 극히 가난하게 살면서도 도(道)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어질다고 칭찬한 바 있다. 이런 공자를 본받아 우리 옛 선비들도 청빈한 삶을 예찬하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렸다. 기름진 음식이 없고 화려한 옷이 없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었던 것은 값없이 즐길 수 있는 영원한 완상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 윤선도, <견회요(遣懷謔) 4>

(나)

남다히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
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피에 올
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가. 산천(山川)이 어두우네 일월
(日月)을 어찌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차라리 물가
에 가 뱃길이나 보려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히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가. 강천(江天)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
니, 남다히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다)

아버지는 휘파람으로 애마를 불러, 아니다, 술집 바깥에 세워 두었던
자전거에 타고 나를 뒷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리곤 휘파람을 불며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떨어지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고 등
에 기대야 했다. 그 등은 알맞게 따뜻했고 어느 때보다 넓고 관대하게 느껴
졌다.

인적이 드문 신작로에 들어선 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하고 불렀다.
“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아버지는 그날 마신 술로 기분이 좋았다.

“싸나아이? 어디 한번 해 보나라.”

“저 학교에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배울 것도 없는 것 같고 애들도
너무 유치해서 사귄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연과 라디오를 스승
삼고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제 수준에 맞는 진학 준비를 하는 것이 좋
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이 ‘씨익씨익’하고 페달만 밟으셨다. 나는 얼
씨구, 내 말이 먹혀드느냐 싶어 주마가편(走馬加鞭)격으로 말을 쏟아 냈
다.

“실은 제 정신 수준은 보통 사람의 서른 살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지
어언 2개월이 넘었습니다. 어찌면 대화도 갈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
다. 비싼 학비를 안 대주셔도 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전거를 세우고는 거의 표준말에 가까운 억양과 어휘로 말
했다.

“고맙다. 내 걱정까지 해 주다니.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아라.
시간을 줄 테니.”

그리고는 달빛 비치는 서산을 넘어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는 신작로 아래 냇가로 내려갔다. 나는 아버지가 오줌을 누려 가시나
보다, 생각하고는 자전거 위에 앉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았다.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자전거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 내려다가는 자전거와 함께 신작로 아래로 굴러 떨어질 것 같아 이
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떨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앉았던 안장을 움켜쥐고 내가 하늘을 서너 번은 죽히 불렀을 때 비로
소 아버지가 올라왔다.

㉢“달밤에 신작로 위에서 자전거 타고 혼자 있으니까 세상이 다 니 아

래로 보이더나?”

아버지는 자전거를 끌면서 말씀하셨다. 그 물음에는 천재인 나도 대답
할 말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 때 아버지의 나이가 사십대 초입이었다. 나는 내 아이가 내게 그렇
게 말해 온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본다. 준비되지 않은 채 몸과 마음만
들뜬 아이를 마음으로 감복시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세상의 틀
에 우겨 넣으려는 한, 내 중년은 아버지의 중년에 비할 수 없이 유치하
다.

- 성석제, <젊은 아버지의 추억>

2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② 대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감추고 있다.
- ③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④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려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22.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가 나는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 : 당신도 저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군요.
- ② (나)의 화자 : 사랑하는 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 ③ (가)의 화자 : 임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당신
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오.
- ④ (나)의 화자 : 아직 임을 만나서는 안 되는 줄 알고는 있지만 그리
움을 주체하지 못해 하는 일이러오.
- ⑤ (가)의 화자 : 저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만 쌓여 가네요.

23. ㉠과 ㉡의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상의 마음을 화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은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을 상징하고 있다.
- ③ ㉠과 ㉡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 주고 있다.
- ④ ㉠과 ㉡은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긍정적 분위기를, ㉡은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4. (다)의 글쓴이가 아버지에게 <보기>와 같이 편지를 썼다고 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아버님, 그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 문득 아버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버님께서서는 자식의 교육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 하지 않으셨지요. ㉠제가 어린 마음에 학교를 그만두려 할 때, 아버님께서서는 뼈 있는 가르침으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지요. 그때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큰 가르침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은 저의 자만심을 제 스스로 가슴 깊이 깨우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느끼는 이 못난 자식은 그때 아버님을 매정하게만 생각했었지요. ㉣세월이 흘러 저도 이제 아버님의 그 역할을 제가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버님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고 싶는데 아무래도 아버님께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게 참으로 부끄러운 뿐입니다. 오늘밤은 유난히 그 옛날의 아버님 모습이 그리워집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5. (다)를 한 편의 영상물로 만들어 보려고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버지' 역에게는 어투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주문한다.
- ② 시골의 달밤을 배경으로 하여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 ③ 어린 '나'의 배역에게는 자신감에 찬 표정 연기도 주문한다.
- ④ 어린 시절 모습을 '나'의 중년 모습과 오버랩 기법으로 나타낸다.
- ⑤ '아버지'는 사려 깊고 인내심이 강한 인물로 배역을 설정한다.

26. ㉢과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고난과 시련에 대처하는 법을 깨우쳐 주기 위해
- ② 세상살이가 생각처럼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
- ③ 꿈을 갖고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쳐 주기 위해
- ④ 타인을 배려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기 위해
- ⑤ 화려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우치기 위해

[해설지]

1. ②

(나)에서 '눈'과 '매화향기'가 서로 대립되는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에서는 '행복'과 '불행', '박'과 '안', '오늘'과 '내일', '밀물'과 '썰물'에서 이미지의 대조가 드러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가)의 '여보게 이웃들아'에서 확인하듯이 시작품에서 청자가 드러난 것은 (가)뿐이다.
 ③ (라)의 '고향 강산은 천 리 밖에 먼데'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나)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가)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세계인 무릉도원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다)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라)의 '지는 해 머금은'에서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지만 (다)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다.

2. ④

(가)의 화자는 자연의 정취와 풍류를 무릉도원에 온 듯한 느낌으로 표현했고, (라)의 화자는 자연의 정취 속에서 효연지기를 갖지 못한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라)에는 시를 쓰려고 하니 호기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대비적으로 자연의 정취를 강조하였지 시를 쓰고 후련해 하지는 않는다.

3. ④

㉞는 추상적인 개념인 계절을 마치 꽃처럼 피고 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고, <보기>는 겨울 밤의 긴 시간을 마치 사람의 몸통처럼 한 허리를 잘라낼 수 있다는 가정이 드러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4. ⑤

'내일의 별'은 화자가 추구하는 미래의 희망을 의미한다. <보기>의 시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어는 '태양'이다.

[오답피하기]

- ①, ② 어두운 현실을 뜻한다.
 ③ 허물어진 삶의 터전을 의미한다.
 ④ 조국으로 볼 수 있다.

5. ①

'라'라는 어미는 직접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② 작품과 독자의 관계에서 작품을 감상하였다.
 ③ 작가와 작품의 관계에서 작품을 감상하였다.
 ④ 작가와 작품의 관계에서 작품을 감상하였다.
 ⑤ 시대적 현실과 작품의 관계에서 작품을 감상하였다.

6. ④

(다)의 화자는 마음먹기에 따라 불행한 상황이 온다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화자가 성적이 떨어져 실의에 빠진 학생에게 말을 한다면 생각하기에 따라 지금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언급할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7. ④

㉠에서는 비유적 묘사의 기법이 쓰이고 있으며, ㉡에서는 산맥의 역동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에서는 대구와 반복의 표현 기법이 나타나며, ㉣에서는 시적 화자와 고향 간의 심리적 거리를 '천 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8. ④

지문의 (가)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에 대한 풍자가 돋보이는 작품이며, (나)는 농촌의 전원적 삶에 대해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며, (다)는 팔월의 절후와 풍속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가사이다. 그런데 (다)는 (가), (나)에 비해 군데군데 '장만하소, 쓰게 하소, 혼수하세' 등의 어투와 절기에 따라 부지런히 농사일을 권면하는 주된 내용으로 볼 때, 교훈성이 부각되는 작품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오답피하기]

- ① (가)가 풍경을 묘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참새에게 질문하는 내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② (가), (다)가 삶에 대한 깨달음의 내용도 없으며, 더구나 (가)는 검소한 과는 거리가 멀다.
 ③ (나)와 (다)에 변화된 계절이 언급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계절의 변화가 묘사된 것은 아니다.
 ⑤ (가)에 전원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찾아볼 수 없다.

9. ⑤

(가), (나), (다)는 모두 농촌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다. 따라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농촌 작물의 의미를 작품 속에서 파악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농민들이 힘들어 재배한 곡물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이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왜냐하면 ⑤번은 산에 자연적으로 있는 열매를 따온 것이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 ③ 누렇게 익은 곡식을 뜻하는 비유적 표현이므로 농민들이 힘들어 지은 곡물이라고 할 수 있다.

10. ③

(가)와 <보기>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지배 계층을 풍자하는 주제적 공통점 외에도 표현 상 유사한 부분이 있다. (가)의 '참새'와 <보기>의 '황새'와 '뱀'은 지배 계층을 의미하며 (가)의 '늪은 흠아비'와 <보기>의 '제비'는 힘 없는 백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①, ②, ④, ⑤번은 자연물을 활용한 점, 풍자적 표현, 직설적 방법이 아니라 우의적 방법의 사용, 작품 속에서 서로 대비되는 소재의 활용은 작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것은 <보기>에선 나타나나 (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묻는 내용으로만 진술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11. ④

(가)의 글쓴이는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도 김 선생 댁에 매화가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화의 암향을 즐기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인다. 자연과 더불어 매화를 감상하고 멋을 즐기는 풍류가 있다. (나)의 화자는 자연을 벗 삼아 유유자적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가), (나)의 공통적 삶의 태도는 자연과 더불어 풍류와 멋을 즐기는 것이므로 ④번이 정답이다.

12. ③

㉔는 '백사기'를 가리키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13. ④

'어부사시사'의 일부인 ㉑~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번은 '춘사1'로 강 마을의 봄 풍경을 나타내고 있으며, 노 젓는 소리를 '지국총 지국총'으로 의성화하여 활기차게 표현했다. ②번은 '춘사4'이다. 삐꾸기 소리(청각)와 푸른 버드나무(시각)의 이미지가 조화를 이룬다. ③번은 '하사2'이다. '연잎', '청약립', '녹사의' 등 소박한 생활을 암시하는 소재와 갈매기와 하나 되어 노니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드러냈다. ④번은 '추사'이다. '물외'란 '속세를 떠난'을 뜻하는데 화자는 속세를 떠나 가을철 강물이 자아내는 흥취를 즐기고 있다. 그러므로 '속세를 걱정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고 한 ④번의 설명은 바르지 않다. ⑤번은 '동사'이다. 천지가 얼음으로 덮이고 비단을 편 것같이 아름다운 물결의 바다를 노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14. ⑤

<보기>는 '빠른 행동'을 촉구하여 분주한 현대 생활에 적응하라는 뜻을 담은 글이다. ㉔의 '친구'는 매화 구경을 가자는 '나'의 제안을 조소하고 있다. 즉 삶의 여유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보기>가 강조하는 내용에 동조할 것이다. 반면에 (나)의 시적 화자는 자연과 더불어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빠른 생활보다는 느림의 생활을 이야기할 것이다. ㉔에서 '친구'는 여유있는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친구'의 삶의 태도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⑤번이 정답이다.

15. ③

(가)에서 글쓴이는 현대인들이 현란하고 화려한 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을 얻기 힘들다고 하며 답답하고 소박한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나)에서는 자연 속에 들어가 욕심을 버리고 소탈하게 살면서도 부러워 할 것이 없다고 하여 두 편의 글에서 모두 화려하지 않은 삶 속에서 느끼는 행복의 소중함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⑤ (가)에서 찾을 수 있는 생각이다.
- ②, ④ 두 글과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 어렵다.

16. ④

'이렇게 해서~더욱 절실해진다.'까지를 문제 상황의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의 서술이 어떤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현대인의 욕구와 진정한 자기를 찾는 것 사이의 격차가 커지는 과정을 연쇄적으로 심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류의 방식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17. ④

㉑의 경우에 합당한 사례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거짓 욕구'가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진정한 자기를 살지 못하는 비극'이 나타나야 한다. 이 두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④인데, 일확천금을 노리고 복권에 집착하는 것은 '거짓 욕구'라고 볼 수 있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은 '진정한 자기를 살지 못한 비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8. ③

[A]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자연 친화'라고 할 수 있다. 자연 속에 살면서 산을 바라보며 임이 오더라도 이처럼 좋을 수는 없다고 하며 화자는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③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청산과 유수, 청풍과 명월 속에서 살아가는 만족스러움을 읊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윤리적인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 ② 인생이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간다는 느낌, 즉 무상감을 노래하고 있다.
- ④ 벼슬하지 않는 선비지만, 임금이 승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슬퍼하고 있는 노래이다.
- ⑤ 비가 그친 뒤에 열심히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격려가 담긴 노래이다.

19. ①

(나)의 둘째 수에는 산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산이 '말씀도 하지 않고, 웃음을 짓지도 않는다'고 표현한 것이 의인화의 기법이다. 셋째 수에도 하늘을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하여 자신에게 강산을 지키는 일을 맡겨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20. ④

'청빈'의 의미는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함'이다. 따라서 '청빈한 삶'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은 ㉔의 '보리밥 풋나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소박하고 어찌 보면 가난한 살림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는 소재이다.

21. ①

(가)는 화자가 유배지에서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과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는 화자가 임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현실적 제약으로 만나지 못하는 절망감과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다)는 필자가 어린 시절 의미 있는 가르침을 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며, 현재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아버지처럼 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난 것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22. ④

(가)는 어버이와 이별한 상황에서 하염없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나)는 사랑하는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 강과 산으로 돌아다니지만 결국 임의 소식을 접할 길이 묘연한 상황이다. '구름'과 '안개', '바람'과 '물결'은 현실적인 여러 제약을 암시하는데, 이러한 제약이 화자와 임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화자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임을 만나 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할 것이다. 따라서 ④와 같이 아직 임을 만나서는 안 되는 줄을 화자가 안다는 진술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이해이다. 정답은 ④이다.

23. ③

(가)의 '외기러기'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로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움과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나)의 '빈 배'는 화자가 임의 소식을 알고자 뱃길을 알아보고자 하나 바람과 물결로 배를 띄울 수 없고 사공마저 없이 빈 배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황이다. 즉, 화자에게 임의 소식을 알 수 없다는 절망감을 심화 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24. ③

(다)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중년의 필자가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학교를 그만 두려는 필자에게 의미 있는 가르침을 준 아버지에게 대한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다. 또한 중년이 된 현재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의 아버지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다. 그러나 ㉠처럼 과거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작품의 정황으로 볼 때 잘못된 이해이며, 당시 아버지의 가르침을 매정하게만 생각했다는 것도 잘못된 이해이다. '그 물음에 천재인 나도 대답할 말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그 당시에도 가르침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25. ①

아버지가 된 중년의 필자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오버랩 기법을 통해서 장면을 드러내면 현재 필자의 장면을 과거와 대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안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시골 달밤의 서정적 정감도 흐르고 있으며, 어린 시절의 '나'의 성격도 자신감에 차 있고 의기양양한 모습이므로 ②, ③, ④는 타당한 방안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사려 깊게 인내하면서 스스로를 깨닫게 해주고 있으므로 ⑤와 같은 인물 배역 설정도 적절하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초기 사투리를 통해 다정하고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들의 철없는 언행에는 일부러 거의 표준말에 가까운 억양과 어투로 말함으로써 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주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 역에게 일관된 어투의 주문은 작품의 사실적 내용과도 다르며, 작가의 의도도 살리지 못하므로 적절치 않다. 정답은 ①이다.

26. ②

㉠은 철없는 언행을 하는 아들에게 의미 있는 말로써 아들 스스로 깨우침을 얻도록 하는 말이다. 그 의미는 자기만이 최고인 양 자신감에 차서 어떤 일이라도 두려워 할 것 없다는 아들에게 바람 부는 신작로에서 자전거 위에 서 있게 해줌으로써 세상살이가 자신의 생각처럼 만만치 않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고 깨우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